



‘영원한 국민타자’ 이승엽이 말하는 ‘야구선수의 설’

“2월은 생존경쟁 시작...가족에게 미안했던 23번의 설날”



선수로, KBO 홍보대사로, 기술위원으로... 이승엽은 최근 3년간 매년 다른 입장에서 설 연휴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점이다. 일본프로야구 시절, 우연히 설 연휴를 한국에서 보냈던 기억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게 다가온다. 스포츠동아DB

민족대명절인 ‘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2월 5일은 기해년(己亥年)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로 새 해의 진정한 출발을 알리는 날이다.

설날의 분위기는 추석과는 사뭇 다르다. 한 해의 시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귀성 길에 오르는 이들은 유독 더 바쁘게 몸을 움직인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곁에 한복까지 차려 입은 아이들의 ‘설빔’은 명절 분위기를 더욱 더 따뜻하게 만든다. 해마다 다가오는 2월 이맘 때 추위가 명절에만 유독 덜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2월 이 시기의 따뜻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민족대명절에도 어김없이 작은 공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프로야구 선수들이다.

프로야구선수들에게 2월은 생존의 경쟁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시즌을 앞두고 진행되는 스프링캠프가 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1월부터 캠프 합류를 걱정해야 하고, 캠프 명단에 들은 후에는 다가오는 새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이들에게 ‘설’은 그저 달력 속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날일뿐이다.

‘국민타자’ 이승엽(43·KBO 홍보대사)은 현역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 중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설을 보냈다. 국내에서 뭘 때는 홈런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서 활약

2월 스프링캠프부터 생존경쟁 돌입 그들에게 설은 달력속 빨간글자일 뿐 현역 23년간 ‘1월의 설’ 단 한번 생겨 요미우리시절엔 대구행 티켓전쟁도 이젠 가족과의 시간 더 많이 보내야죠



할 때는 한국타자의 자존심을 위해 명절도 잊고 배트를 부여잡았다. 이제는 현역을 떠난 그에게 프로야구선수의 ‘잊혀진 명절’이란 어떤 것인지 물었다. 가장 먼저 돌아온 말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커지는 날”이란 것이었다.

●가족에게 전한 ‘23번의 미안함’

1995년에 데뷔한 이승엽은 은퇴시즌인 2017년까지 단 한해도 빠짐없이 그라운드를 밟았다. 큰 부상도 없이 한국과 일본 무대를 누비며 최고의 자리에서 늘 제 몫을 해냈다.

23년. 그가 현역 유니폼을 입고 댄 세월이다. 그런데 이 빛나는 세월은 결코 혼자만의 활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묵묵히 뒤에서 그를 지원하는 가족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

이승엽은 “가족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은퇴식에서 가장 먼저 했다. 이 말은 지난 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됐다.

그는 “모든 프로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야구선수는 특히 명절을 챙기기 어렵다. 나도 사실 설을 가족과 보낸 기억이 거의 없다. 23년을 뛰면서 매 번 미안한 마음만 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늘 스프링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인사는 주로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다. 아이들을 홀로 챙기면서 명절 일까지 도와야 했으니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타자에게도 예외 없는 티켓 전쟁

귀성 길 기차표를 구하기 위한 ‘클릭 전쟁’은 설과 추석이 다가오면 늘상 이야기되는 화제거리다. ‘전 국민 수감신청’이라 할 만큼 치열한 다툼, 국민타자도 예외는 없었다.

이승엽은 “일본에서 선수생활을 할 때는 그나마 이전에 조금 하던 만큼도 설을 챙기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대구(본가)에 내려가는 기차표를 일찍 구매해주는 것뿐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표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빨리 예매를 해서 가족에게 전해주고 일본으로 급히 떠났던 기억들이 난다”고 말했다.

지금의 ‘클릭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는 “2012년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한 뒤에는 줄곧 대구에 살았다. 다행히(?)는 귀성 길 표를 구할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단 한 번의 1월 ‘설’

매번 미안한 기억만 남긴 설이지만 이승엽에게도 딱 한번의 명절 기억은 있다. 바로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시절, 우연히 마주하게 된 1월의 설날이었다.

이승엽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뭘 때로 기억한다. 우연히 그 해에는 설날이 1월에 있었다. 캠프에 합류하기 전 시간도 있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대구에 내려가 분가에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그 중에서도 요미우리는 야구를 준비하는 자세, 태도에 굉장히 엄격한 구단이다. 외국인선수라 해서 개인행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더 열심히 캠프에 정진해야 했다. 그래서 그때 딱 한번 보낸 가족과의 1월 설이 유독 기억에 더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은퇴 그 이후에 맞이한 설은?

2017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승엽은 2018년부터는 스프링캠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긴 세월 끝에 드디어 맞이하게 된 국

내에서의 2월이었지만, 또다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진 못했다.

이승엽은 “은퇴를 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기가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빴다. 장학재단 운영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 또 한 번 가족에게 미안함을 전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후 맞이할 설에 대해서는 “현재로 오면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 북적거리는 명절의 모습은 많이 즐겼다고 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동안 함께 못 한 시간을 더 자주, 그리고 또 많이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이승엽이 전하는 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기해년 출발을 알리는 민족대명절 설이 어느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척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시간 속에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후 & 강백호, 한국야구 미래들의 수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다른 선수들이 보기에는 둘 다 매너가 없을 것이다(웃음).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강=“장타력은 내가 낫지 않나? 송구도 정후 형보다는 자신 있다. 고등학교 때 150km 던졌던 건 어디 안 간다. 그런데 정후 형의 밸런스는 따라갈 수 없다. 선구안, 콘택트 능력도 그렇고 솔직히 내가 앞서는 건 파워뿐인 것 같다.”

이=“백호는 우리나라 최고 홈런타자가 될 사람이다. 파워는 따라갈 수 없다. 파워도 파워

인데, 멘탈이 가장 부럽다. 백호는 정말 능글맞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슬럼프도 훌훌 털어낸다. 나는 그게 잘 안된다. 선구안과 콘택트 능력은 확실히 내가 더 괜찮다. 아, 외모는 확실히 내가 낫다. 백호는 듣지 해서 형들이 좋아할 타입이고...”

●확실한 소망, 동반 태극마크

-이정후는 대부분 신인들이 겪는 2년차 징크스를 피해갔다. 강백호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강=“신경이 아예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다. 올 시즌에 망하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웃음). 다른 동기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정후 형이 2년차 때 해놓은 것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이=“지난해 워낙 잘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치지 않으면 충분히 잘할 것이다.”

강=“형은 지난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2년차 징크스가 두렵지 않았나?”

이=“지난해 인터뷰 때마다 ‘2년차 징크스’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실은 걱정이 됐었다. 슬럼프에 빠질 때면 다쳐서 2군에 내려가서 시간을 벌었다(웃음). 진지하게 말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다. 시즌을 치르다보면 누구나 부진한 시기가 있다. 그때 ‘2년차 징크스인

가?’라고 생각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스스로를 죽이는 생각이다. 나는 슬럼프 때마다 (김)하성이 형이 도움을 줬다.”

-오늘거리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다. 서로에게 설 덕담 한마디씩 부탁한다.

강=“지난해에 나와 동기들이 1군에서 뭘 수 있었던 건 전부 정후 형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벽을 정후 형이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나는 그걸 이어간 것뿐이다. 그뿐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 잘 챙겨준다. 늘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다소 영혼이 없는 멘트 같다(웃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호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싶다. 내가 1루에 살아나고 백호가 나를 불러들인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

다.”

프로야구 태동기인 1980년대를 경험한 ‘올드 야구팬’에게 선동열과 최동원의 맛대결, 이만수의 원년 개막전 홈런 등은 여전히 선명한 기억이다. 자료로만 그 시절을 접할 뿐인 젊은 야구팬들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 팬들 앞에는 ‘이정후와 강백호의 동반 성장기’라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놓여 있다. 이들이 기대대로 성장한다면 수십 년 뒤 “이정후, 강백호가 신인일 때부터 지켜봤다. 선의의 경쟁이 정말 대단했다”고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인이라고 믿기 힘든 대기록들을 써내려갔지만, 그 스토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편집 | 안도연 기자 do02@donga.com